

‘한자어+하다’ 동사 연구

이서란*

1. 머리말

현대국어 동사 ‘하다’는 다양한 쓰임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만큼 동사 ‘하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하다’의 성격과 기능을 점차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측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동사 ‘하다’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X-하다’ 동사의 ‘-하다’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X-하다’ 형용사가 파생어이고) 이 때의 ‘-하다’는 파생접미사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에 비하여, ‘X-하다’ 동사의 경우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주시경(1910)에서부터 ‘-하다’의 쓰임이 본동사와 파생접사, 보조동사로 나누어 서술되고 있다. 박승빈(1935)은 ‘하다’가 특정한 동작의 의의가 없어 혼자서는 아무런 구체적 의미도 못 나타내면서 동사의 세(勢)가 모자라는 ‘사랑, 求, 활동’ 등에 어미로 첨가되어 동사를 이룬다고 보았다. 최현배(1961)는

* 1999년 2월 학사과정 졸업 예정

1) 이 글에서 조어법 관련 술어는 대체로 이익섭(1975)의 체계를 따른다.

단, 그 내용과 체계는 이익섭(1975)과 동일하지만, 복합어를 합성어와 파생어를 아울러 가리키는 유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는 현행 학교문법과 <국어학의 번역술어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5)에 따른 것이다.

‘하다’의 문법적 기능을 동사, 파생접미사, 보조동사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으며 이것이 현행 학교 문법의 기틀이 되었다.

‘하다’의 본격적인 연구로는 송석중(1967), 박병수(1974), 송병학(1974), 서정수(1975) 등을 들 수 있다. 송석중(1967)은 본동사와 접사로서의 ‘하다’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박병수(1974) 역시 ‘하다’가 의미가 있는 하나의 완전동사임을 논증하는데 주력했다. 송병학(1974)은 ‘하다’를 크게 대리동사와 대동사로 나누면서 소위 파생형용사와 파생동사의 ‘-하다’를 접사가 아닌 동사로 보려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서정수(1975)에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하다’의 선행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다’가 결국에 형식동사와 대동사의 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행요소에 실체성이 있을 때는 대동사이며 실체성이 없을 때는 형식동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박병수(1977)는 ‘하다’를 심층의 주동사로 주장하면서 형식동사설을 논박하였고, 김영희(1981, 1984)는 ‘-하다’를 대동사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동사들의 상위어인 ‘포괄동사’라고 주장했다

임홍빈(1979)은 ‘-하다’ 동사의 선행요소가 ‘-을/를’에 의해서 분리되는 현상을 ‘용언의 어근 분리’라는 개념으로 다루었다. 심재기(1980=1982)는 ‘-하다’가 동사화소, 즉 일종의 파생접미사로서 서술기능 대행, 서술기능 완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미상으로는 선행어근의 투영의미를 완전표출한다고 보았다. 서정수(1991)에서는 서정수(1975)의 논의를 확장하여 ‘-하다’의 허형태성을 다시 강조하고 ‘-하다’와 ‘-되다’를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창섭(1981)은 ‘명사+하다’ 동사를 파생법에 의해 형성된 파생동사로 보았으며, 이후 김창섭(1997)에서는 ‘X-하다’의 ‘-하다’가 생략되는 현상을 다루면서 접미사로 처리한 ‘-하다’의 비어휘성을 주장했다.

이창덕(1985)은 표면적으로 다양한 ‘하다’의 기능이 결국 대동사의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고, 양명희(1990)는 ‘하다’의 기능을 크게 넷으로 나누면서 ‘X-하다’에 해당하는 형태를 서술성 이행기능(I)이라고 보았으며, 김유정(1993)은 ‘-하다’를 의미적으로 [Ø]이며 서술성 명사의 의미·통사적 기능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능동사로 보고 복합술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논의는 크게 보아 ‘X-하다’ 동사의 ‘-하다’에 대하여 실질적

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동사, 대동사, 동사파생접미사, 그리고 의미가 없는 형태로 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X-하다’ 동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생산성을 보이는²⁾ ‘한자어+하다’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하다’ 동사는 그것이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자어+하다’ 동사를 대상으로 ‘-하다’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2장에서는 ‘한자어+하다’ 동사의 한자어 어기에³⁾ 관심을 집중한다. 2.1.에서 한자어 분류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본 다음, 2.2.에서 ‘한자어+하다’ 동사를 한자어 어기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주로 한자어의 내부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한자어의 훈(訓)과 고유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임시적인 분류가 되겠으나 이를 통해서 이들 어기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2.3.에서는 신어의 ‘한자어+하다’ 동사를 대상으로 그 어기를 살펴보면서 2.2.의 분류와 논의 내용을 검토한다. 2.4.에서는 2장의 논의를 정리하여 ‘X-하다’의 한자어 어기의 성격을 정리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하다’의 의미기능을 점점해 보기로 한다.

3장에서는 ‘한자어+하다’를 ‘-하다’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형태(-시키다, -되다, -받다, -당하다, -하여지다)의 복합형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하다’

2) 본 연구의 일차적 자료는 동형어를 고려하지 않은 5684개의 복합동사이며, 그 중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3371개이다(59.31%). 동형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전체 복합동사 중에서 ‘한자어+하다’ 동사의 비율은 55.0%로, 복합동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동형어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경우 ‘-하다’ 복합동사는 345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기가 순수하게 한자어인 단어는 3207개로 절대다수(92.9%)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한자어+하다’ 동사는 다른 복합동사들과 달리, 그 조어법의 생산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한자어+하다’ 동사가 한국어 동사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된다.

3) 이 글에서는 ‘한자어+하다’의 형식에서 ‘-하다’의 선행형태를 ‘어기’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는 이들 한자어가 자립성을 지닌 명사(어간)인지, 다만 의존형식에 불과한 어근인지의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사전은 이들 어기를 모두 명사로 간주하여 표제어에 올리고 있으며, 적절한 문맥이 주어질 경우 대부분의 형태에 ‘-을/를’이 아닌 조사의 결합도 가능하지만, 이들 모두를 명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의 의미기능을 고찰할 것이다. 3.2에서는 이들의 공존을 기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공존유형과 그에 따른 구문론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고, 3.3에서는 이들 유형의 해석으로부터 ‘-하다’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추론한다.

2. ‘한자어+하다’의 어기와 ‘-하다’의 기능

2.1. 한자어 어기의 분류 기준

그 동안 ‘X-하다’ 동사의 연구에서는 어기가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에는 별달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한자어 어기를 아예 논외로 하거나 고유어 어기에서 보이는 특징을 유추하여 해석하였다. 그러나, 고유어와 한자어가 조어법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점은 이 방면의 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으므로, ‘X-하다’ 동사의 연구에서도 어기가 고유어일 때와 한자어일 때를 구분하여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X-하다’ 동사의 어기 중에서 고유어에 비하여 체계적인 분류가 되지 않은 한자어 어기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피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하다’에 접근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어기의 통사적인 특징 대신에 내부 구조를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겠다.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수에 따라 일차적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한자의 훈(訓)을 기준으로 한 내부 구조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2.2. 한자어 어기의 유형

2.2.1. 1음절 한자어의 경우⁴⁾

4) 간(諫)-하다, 감(減)-하다, 결(決)-하다, 결(缺)-하다, 겸(兼)-하다, 고(告)-하다, 곡(哭)-하다, 과(過)-하다, 관(關)-하다, 구(求)-하다, 구(救)-하다, 굴(屈)-하다, 권(勸)-하다, 금(禁)-하다, 기(期)-하다, 노(怒)-하다, 논(論)-하다, 달(達)-하다, 답(答)-하다, 당(當)-하다, 대(對)-하다, 동(動)-하다, 망(亡)-하다, 면(面)-하다, 면(免)-하다, 멸(滅)-하다, 명(命)-하다, 반(反)-하다, 발(發)-하다, 벌(伐)-하다, 범

- (가) 겸(兼)-하다, 곡(哭)-하다, 답(答)-하다, 욕(辱)-하다, 청(請)-하다, 평(評)-하다
- (나-1) 당(當)-하다, 대(對)-하다, 변(變)-하다, 비(比)-하다, 위(爲)-하다, 전(傳)-하다, 정(定)-하다, 피(避)하다
- (나-2) 감(減)-하다, 결(決)-하다, 고(告)-하다, 과(過)-하다, 동(動)-하다, 의(依)-하다, 준(準)-하다, 필(畢)-하다, 파(罷)-하다, 화(化)-하다

(가)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어기는 상당히 자립적이어서 예문 (1)에서 보듯이 보통명사처럼 쓰인다. 특히 (1a)는 의존명사의 성격을 보이는 특이한 예라고 하겠다.

- (1) a. 기본전환도 할 겸 친구 선물도 살 겸 해서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다.
- b. 곡소리가 너무 슬펐어.
- c. 그 문제는 답이 안 보인다.
- d. 그 애는 상스런 욕을 많이 하더라.
- e. 이제는 욕도 언어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 f. 그분께 칭이라도 드려 보지 그랬니.

그러나, 이들은 통곡하다, 대답하다 등의 동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한자어와 똑같이 행동한다. 어기가 명사처럼 행동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산, 강, 문’ 등의 일반적인 명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겠다.

(나) 유형의 동사는 (가) 유형과 달리 사이에 조사를 개입시킬 수도 없고 어기가 단독으로 떨어져 사용될 수도 없으며, ‘하다’와 분리되어 쓰일 수도 없다. 이렇듯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단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

-
- (犯)-하다, 변(變)-하다, 봉(封)-하다, 비(比)-하다, 사(赦)-하다, 상(傷)-하다, 속(屬)-하다, 쇠(衰)-하다, 염(念)-하다, 요(要)-하다, 욕(辱)-하다, 원(願)-하다, 위(爲)-하다, 유(柔)-하다, 응(應)-하다, 의(依)-하다, 인(因)-하다, 임(臨)-하다, 전(傳)-하다, 점(點)-하다, 접(接)-하다, 정(定)-하다, 제(除)-하다, 준(準)-하다, 책(策)-하다, 처(處)-하다, 철(綴)-하다, 청(請)-하다, 취(取)-하다, 취(醉)-하다, 칠(漆)-하다, 칭(稱)-하다, 택(擇)-하다, 토(吐)-하다, 통(通)-하다, 파(罷)-하다, 패(敗)-하다, 평(評)-하다, 표(表)-하다, 피(避)-하다, 필(畢)-하다, 한(限)-하다, 합(合)-하다, 해(害)-하다, 행(行)-하다, 향(向)-하다, 혹(惑)-하다, 화(化)-하다, 흥(興)-하다

타의 '-하다' 결합형과는 달리 전형적인 복합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1) 유형에는 한국어에 완전히 동화한 예가 많고, 이들은 2음절 이상의 한자어와는 통사적으로도 다른 행동을 보인다. 또한 구어에서도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 화자들이 특별히 한자어라는 인식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나-2) 유형과 다르다. 한자에 대응하는 고유어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나-1)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어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겠다(위할 爲, 향할 向, 피할 避, 대할 對, 당할 當, 변할 變, 비할 比, 전할 傳 등). 이는 대응하는 고유어가 없는 산(山), 강(江), 문(門) 등의 명사와 어느 정도 평행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山), 강(江), 문(門)' 등의 명사들이 고유어 명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하는 데 비해,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즉 한자의 속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나-2) 유형에서는 한자어의 훈과 대응되는 고유어 동사들이 존재하고, 한자 어기가 자립형식의 성격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속하는 한자는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2음절로 된 한자어 어기를 구성하는데 매우 활발하게 참여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한자 어기가 본래 한문에서 가졌던 동사적 속성을 상당히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형태는 한문 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점차 2음절로 된 한자어 어기의 형식으로 대치되는 중이라는(심재기(1982)) 것이다.

1음절로 이루어진 어기는 예외없이 한자의 전통적인 훈이 동사라는 점에서는 (가), (나) 유형이 일치한다. 특히 명사적인 성격을 보이는 (가) 유형조차도 훈이 동사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2.2. 2음절 한자어의 경우⁵⁾

'한자어+하다' 동사의 어기는 '-하다' 형용사의 일부 어기(예: 화려(華麗))

5) 한국어 체계 안에서 한자어는 대부분 2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의 자료인 3207개의 '한자어+하다' 동사 중에서도 2955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1음절(79 단어), 2음절(116 단어), 4음절(57 단어)은 모두 제시할 수 있었지만, 2음절 한자어 어기를 갖는 단어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제시하지 못하고 유형별로 몇 개씩만 보기를 드는데 그친다.

와는 달리 모두가 적절할 문맥이 주어질 경우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2음절로 된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기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핵(head)에⁶⁾ 따른 분류를 시도한다. 하위항목은 서정수(1975)에서 가설적으로 제시된 예를 많이 참조하였다.

- (다) 개학(開學), 금주(禁酒), 변형(變形), 분반(分班), 설법(說法), 세차(洗車), 실명(失明), 입안(立案), 제명(除名), 종강(終講), 투고(投稿), 퇴사(退社), 휴업(休業), 헌신(獻身)
- (라) 도일(渡日), 상륙(上陸), 입장(入場), 재위(在位), 집중(集中), 처형(處刑)
- (마) 감소(減少), 축소(縮小), 해명(解明), 확대(擴大)

이 유형은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는 '동작+목적', (라)는 '동작+목표', (마)는 '동작+한정어'의 구조이므로 이들 여기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훈을 갖는 한자어가 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몇몇 핵을 구성하는 한자들에 의해 많은 수의 한자어가 형성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

- (바-1) 급증(急增), 묵인(默認), 암산(暗算), 완승(完勝), 은거(隱居), 중용(重用), 직역(直譯), 천시(賤視), 호평(好評), 확신(確信)
- (바-2) 갈구(渴求), 겸임(兼任), 대담(對答), 면담(面談), 보고(報告), 시식(試食), 애창(愛唱), 약술(略述), 역류(逆流), 익사(溺死), 제정(制定), 증가(增加), 회담(會談), 환승(換乘)
- (바-3) 가정(假定), 공존(共存), 독백(獨白), 복간(復刊), 부정(否定), 상술(詳述), 선도(先導), 실습(實習), 예정(豫定), 자재(自在), 재개(再開)
- (바-4) 남침(南侵), 미행(尾行), 야근(夜勤), 언쟁(言爭), 역설(力說), 외식(外食), 운집(雲集), 일치(一致), 중퇴(中退), 채식(菜食), 총살(銃殺), 추수(秋收)
- (사-1) 상태+화(化): 강화(強化), 약화(弱化), 정화(淨化)
- (사-2) 동작+화(化): 진화(進化), 퇴화(退化)

6) 박진호(1994)는 통사론의 용어인 핵을 통사원자(단어) 내부의 분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핵을 결정하는 주요 원리는 분포이며 통사원자를 분포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 통사원자의 범주(품사)이므로, 통사원자의 범주에 따라 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 유형은 ‘한정어+동작’의 구조로서, 핵이 앞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핵이다. 이 경우에는 핵을 구성하는 한자들뿐만 아니라 한정사에 해당하는 한자들도 많은 수의 단어에 등장한다. 한자의 훈이 속하는 통사범주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바-1) 유형은 ‘형용사+동사’, (바-2)는 ‘부사+동사’, (바-3)는 ‘동사+동사’, (바-4)는 ‘명사+동사’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바-1) 유형과 (바-3) 유형의 어기를 갖는 단어가 ‘한자어+하다’ 동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고유어 동사 하나에 해당하는 ‘한자어+하다’ 어휘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만들다: 제작하다, 제조하다). 이렇듯 고유어에 비해 의미장이 좁기 때문에 외국어 단어를 옮길 때 이 유형의 한자로 옮기기 쉽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외국어 사전을 통해 직접 확인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바-4) 유형은 명사가 부사처럼 해석되어 쓰이는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야근-밤일’, ‘추수-가을걷이’와 같이 고유어 명사와 대응되는 단어들은 재미있는 예라고 하겠다.

(사) 유형에서 ‘화(化)’를 핵으로 본 이유는 (사-1)의 경우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어에 ‘화(化)’가 결합됨으로 해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역할을 ‘화(化)’가 수행하고 있다. 어기의 통사범주를 바꾸는 이러한 기능은 접미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접미사를 파생어의 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1)의 구조에서 핵은 ‘화(化)’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추하여 (사-2)와 같이 ‘동작+화(化)’의 구성에서도 ‘화(化)’를 핵으로 보는 것이다. 뒤에서 이 ‘화(化)’가 대단히 생산적인 접미사로서 동사 범주, 형용사 범주 뿐 아니라 명사 범주 뒤에도 붙어서 어기 전체에 동작성을 부여함을 보게 될 것이다(2.2.3., 2.3.)

(아-1) 가감(加減), 시청(視聽), 왕래(往來)

(아-2) 결박(結縛), 변천(變遷), 설립(設立), 연소(燃燒), 유전(遺傳), 응답(應答), 존경(尊敬), 존재(存在), 휴식(休息), 희망(希望)

(자) 공부(工夫), 숙제(宿題), 신호(信號), 전화(電話)

(아) 유형은 병렬구조로서 (아-1)는 대립구조이고, (아-2)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를 중복하여 나열한 구조이다.

(자) 유형은 한자 각각의 통사범주나 훈이 단어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들로, 모두 한국어에서는 명백하게 명사의 통사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특히 이들 어기 중에서 실체성을 띤 명사들의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다, 전화를 걸다’ 등과 같이 ‘하다’가 아닌 다른 동사들의 결합이 가능하고, 실제로 ‘-하다’와 결합되었을 때에도 그 동사들의 의미를 갖는다.

결국 (자) 유형에 속하는 극소수를 예외로 한다면, ‘한자어+하다’ 동사의 한자어 어기가 2음절로 구성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기는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핵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어기가 동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성 어기에 대한 처리, 즉 과연 이것이 ‘서술성 명사’인가의 문제는 한자어 조어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더 깊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2.3. 3음절 이상의 한자어의 경우

- (차-1) 간소화(簡素化), 객관화(客觀化), 공식화(公式化), 공업화(工業化), 구체화(具體化), 규격화(規格化), 근대화(近代化), 기계화(機械化), 다원화(多元化), 단순화(單純化), 도식화(圖式化), 무효화(無效化), 백지화(白紙化), 비핵화(非核化), 상품화(商品化), 성문화(成文化), 시각화(視覺化), 신격화(神格化), 양극화(兩極化), 영화화(映畫化), 우상화(偶像化), 의인화(擬人化), 일반화(一般化), 일원화(一元化), 자동화(自動化), 자유화(自由化), 전문화(專門化), 정당화(正當化), 정상화(正常化), 조직화(組織化), 체계화(體系化), 최소화(最小化), 추상화(抽象化) 토착화(土着化), 표준화(標準化), 현대화(現代化), 현실화(現實化), 형상화(形象化), 형식화(形式化), 활성화(活性化)
- (차-2) 도외시(度外視), 동일시(同一視), 등한시(等閑視), 위험시(危險視), 적대시(敵對視), 중요시(重要視)
- (차-3) 해수욕(海水浴), 불시착(不時着), 역전승(逆轉勝)
- (카) 동부인(同夫人), 통사정(通事情), 입후보(立候補)
- (타) 재개발(再開發), 재검토(再檢討), 재결합(再結合), 재교육(再教育), 재구성(再構成), 재발견(再發見), 재발급(再發給), 재방송(再放送), 재배치(再配置), 재생산(再生産), 재선거(再選舉), 재수입(再輸入), 재수출(再

輸出), 재심사(再審査), 재인식(再認識), 재임명(再任命), 재임용(再任用), 재입국(再入國), 재입학(再入學), 재조사(再調査), 재조정(再調整), 재조직(再組織), 재편성(再編成), 재평가(再評價), 재확인(再確認)
 급강하(急降下), 급상승(急上昇), 급정거(急停車), 급진전(急進展), 급회전(急回轉),
 가매장(假埋葬), 가석방(假釋放), 가처분(假處分)
 직거래(直去來), 직수입(直輸入), 직수출(直輸出)
 불신임(不信任), 불합격(不合格),
 맹공격(猛攻擊), 맹활약(猛活躍),
 밀도살(密屠殺), 밀입국(密入國),
 암거래(暗去來), 암매장(暗埋葬),
 강행군(強行軍), 공치사(空致辭), 대청소(大清掃), 반비례(反比例), 생이별(生離別), 시운전(試運轉), 악선전(惡宣傳), 우회전(右回轉), 정비례(正比例), 좌회전(左回轉), 총동원(總動員)
 (과) 통폐합(統廢合), 문단속(門團束), 집대성(集大成)

(차)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은 맨 뒤에 있는 1음절을 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핵들은 여기서는 기존의 2음절 한자어 뒤에 연결되는 접미사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2음절 한자어를 형성하는 데에도 핵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여 ‘진화(進化), 천시(賤視), 목욕(沐浴), 도착(到着), 완승(完勝)’ 등을 만들어 낸다. 다만, 화(化)는 3음절 한자어를 형성할 경우 특별히 명사 뒤에 붙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자 ‘화(化)’는 한자 훈이 갖고 있는 ‘되다’라는 원래의 의미보다는 ‘-로 만들다’, ‘-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카) 유형은 맨 앞에 있는 1음절이 핵이며, ‘동작+목적’이나, ‘동작+서술’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타) 유형은 기존의 2음절 한자어 어기 앞에 접두사의 기능을 갖는 한자들이 결합된 것이다. 이 들 역시 ‘재개, 가정, 직역, 밀수, 강권, 공전’ 등의 2음절로 된 한자어를 형성하는 데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그러나 이들을 고유어 접두사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기술했을 경우 ‘강화’와 같은 단어는 접두사와 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되기 때문이다.

(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단어들이다.

(하) 갑론을박(甲論乙駁), 개과천선(改過遷善), 경거망동(輕舉妄動), 고군분투(孤軍奮鬪), 과대평가(過大評價), 과소평가(過小評價), 금의환향(錦衣還鄉), 기사회생(起死回生), 기진맥진(氣盡脈盡), 노심초사(勞心焦思), 능지처참(陵遲處斬), 대경실색(大驚失色), 대동단결(大同團結), 대서특필(大書特筆), 동고동락(同苦同樂), 동문서답(東問西答), 동분서주(東奔西走), 만수무강(萬壽無疆), 망연자실(茫然自失), 매점매석(買占賣惜), 무임승차(無賃乘車), 무전취식(無錢取食), 반신반의(半信半疑), 발본색원(拔本塞源), 백년해로(百年偕老), 불심검문(不審檢問), 사사오입(四死五入), 선전포고(宣戰布告), 술선수범(率先垂範), 수수방관(袖手傍觀), 심사숙고(深思熟考), 아연실색(啞然失色), 암중모색(暗中摸索), 애걸복걸(哀乞伏乞), 애지중지(愛之重之), 양자택일(兩者擇一), 왈가왈부(曰可曰否), 우왕좌왕(右往左往), 의기투합(意氣投合), 이실직고(以實直告), 인신공격(人身攻擊), 일망타진(一網打盡), 일맥상통(一脈相通), 일치단결(一致團結), 자급자족(自給自足), 자포자기(自暴自棄), 전전공공(戰戰兢兢), 좌지우지(左之右之), 좌충우돌(左衝右突), 중상모략(中傷謀略), 차일피일(此日彼日), 침소봉대(針小棒大), 파안대소(破顏大笑), 패가망신(敗家亡身), 학수고대(鶴首苦待), 호언장담(豪言壯談), 횡설수설(橫說豎說)

(하) 유형은 4자로 구성된 한자어이다. 이른바 4자성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대부분이며 모두 동작성을 나타낸다. 또한 2음절 한자어가 직접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병렬 혹은 수식구조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 연구의 대상에는 4음절 이상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하다’ 동사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3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자어 어기의 구성은 결국 2음절로 이루어진 한자어 어기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동작성을 나타내고 있는 어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2.3. 신어의 ‘한자어+하다’ 동사⁷⁾

7) 신어 ‘X-하다’ 동사의 어기는 고유어, 영어, 한자어, 그리고 이들 각각의 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 목말라-하다, 바람몰아-하다, 자리매김-하다
- b. 룽런-하다, 리메이크-하다, 리스타일-하다, 배팅-하다, 빅히트-하다, 어필-하다,

(거) 재가동(再稼動), 재가입(再加入), 재강조(再強調), 재개관(再概觀), 재개장(再開場), 재격돌(再激突), 재구축(再構築), 재구합(再糾合), 재기용(再起用), 재단장(再丹粧), 재등극(再登極), 재등장(再登場), 재등정(再登程), 재발급(再發給), 재분석(再分析), 재사용(再使用), 재상륙(再上陸), 재상승(再上昇), 재선임(再選任), 재설계(再設計), 재수사(再搜查), 재승인(再承認), 재역전패(再逆轉敗), 재의뢰(再依賴), 재이륙(再離陸), 재입국(再入國), 재입당(再入黨), 재입력(再入力), 재입사(再入社), 재장전(再裝填), 재점검(再點檢), 재정리(再整理), 재정립(再定立), 재제작(再製作), 재조립(再組立), 재주선(再周旋), 재증여(再贈與), 재창조(再創造), 재창출(再創出), 재출현(再出現), 재충전(再充電), 재취업(再就業), 재침공(再侵攻), 재편집(再編輯), 재포장(再包裝), 재해석(再解釋), 재화합(再和合), 재획득(再獲得)

(너) 맹공격(猛攻擊)

(더) 강점화(強點化), 강제화(強制化), 건실화(健實化), 건전화(健全化), 계량화(計量化), 고급화(高級化), 공개념화(公概念化), 공론화(公論化), 공사화(公私化), 공영화(公營化), 국악화(國樂化), 군벌화(軍閥化), 기독교화(基督教化), 기사화(記事化), 기정사실화(既定事實化), 다자화(多者化), 단기화(短期化), 대도시화(大都市化), 등식화(等式化), 사회문제화(社會問題化), 선진화(先進化), 성설화(常設化), 실세화(實勢化), 액자화(額子化), 작품화(作品化), 쟁점화(爭點化), 전산화(電算化), 정례화(定例化), 정책화(政策化), 정치대국화(政治大國化), 정치쟁점화(政治爭點化), 제품화(製品化), 조형화(造形化), 지구촌화(地球村化), 지역화(地域化), 지하경제화(地下經濟化), 지하화(地下化), 차등화(差等化), 탈전통화(脫傳統化), 흉포화(凶暴化)

신어 중에서 '한자어+하다' 동사의 어기는 3음절 이상으로서 기존의 한자

오버라이드-하다, 이미지업-하다, 커버링-하다, 코드-하다, 트리트먼트-하다

c. 헛스윙-하다

d. 거품화(-化)-하다

검출연(-出演)-하다, 맞대응(-對應)-하다, 맞제소(-提訴)-하다, 새단장(-丹粧)-하다, 손세탁(-洗濯)-하다

e. 강슌(強-) -하다, 대히트(大-) -하다

플가동(-稼動)-하다

데이터베이스화(-化)-하다, 디지털화(-化)-하다, 체인화(-化)-하다, 펄프화(-化)-하다, 헤게모니화(-化)-하다, 카드화(-化)-하다, 컨테이너화(-化)-하다

어에 ‘화(化), 재(再), 맹(猛)’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만 보인다. 2음절 한자어 어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3음절 이상의 한자어 어기를 설명할 수 있음은 위에서 말하였다(2.3.3.). 따라서 신어에서 발견되는 한자어 어기들도 모두 동작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화(化)’와 ‘재(再)’가 결합된 형태가 신어 ‘한자어+하다’의 거의 전부이며, 이들은 3음절 한자어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화(化)’와 ‘재(再)’의 접사적 성격이 다른 단어에 비하여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再)X-하다’는 X가 2음절 이상의 한자어일 경우에는 ‘다시 X-하다’로 나누어 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신어 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하다’는 이 구조를 이룰 수 있다.

2.4. 어기의 동작성과 ‘-하다’의 기능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한자어+하다’의 어기는 특이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동작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존 논의에서 특히 논란거리가 되었던 ‘공부하다’는 이 예외적인 경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어기 자체가 이미 동작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외래적인 요소는 직접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바로 동사로 쓰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한자어+하다’ 동사에서 ‘-하다’는 동작성을 나타내는 어기에 연결되어 어미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어기만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시제나 상, 서법 등을 표현하고, 문장 내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하다’의 의미자질이 [Ø]인 기능동사나 허형태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한자어+하다'에서 '-하다'의 의미

3.1. '-하다'와 교체 가능한 형태들

'한자어+하다'의 어기는 '-하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되다', '-시키다', '-당하다', '-받다', '-해지다' 등 다양한 형태와도⁸⁾ 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체에서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하기는 힘들더라도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되다'는 피동의 의미를, '-시키다'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받다', '-당하다', '-해지다' 등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되다'나 '-시키다'는 피동 혹은 사동의 기본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2) a. 이번 폭우로 5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실종되었다.
 b. *39명을 실종하였다.
 (3) a. 요소요소에 군사를 배치시켰다.
 b. *군사가 배치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자어 어기에 '-하다' 및 여타 형태가 교체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3.2. '-하다'와 교체 가능한 형태들의 결합 양상

3.2.1. 타동사 '한자어+하다'의 경우

'한자어+하다'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하여 타동사로 쓰일 경우, 일반적으로 그 동사의 피동 표현은 대체로 'X-해지다'가 아닌 'X-되다'로 나타나며 사동 표현은 'X-시키다'로 나타난다.

8) 일종의 이중피동형인 '-되어지다'는 실제로는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 (4) a.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친히 창제하셨다.
- b.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되었다.
- c.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한글을 창제시켰다는 것은 근거 없는 상식이다.

그러나 'X-시키다'가 결합되었을 때 사동의 뜻을 갖지 않고 타동사 '한자어+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서 (5a)와 (5b)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5) a.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 b.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시킨 것이다.
- c.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동명의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다.

또한, 영어의 수여동사에 대응되는 '한자어+하다' 동사들은 능동문에서 '-하다', 간접목적어가 주어인 피동문에서 '-받다', 직접목적어가 주어인 피동문에서 '-되다'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 (6) a. 본부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발급했다.
- b. 학생증이 발급되었다.
- c. 신입생들은 학생증을 발급받았다

이러한 흥미 있는 현상은 수여가 아니라 박탈일 경우에도 관찰된다. 즉 능동문에서 '-하다', 간접목적어가 주어인 피동구문에서 '-당하다', 직접목적어가 주어인 피동구문에서 '-되다'가 나타난다.

- (7) a. 선생님은 아이들에게서 만화책을 압수했다.
- b. 만화책은 압수되었다.
- c. 아이들은 만화책을 압수당했다.

한편, 1음절로 된 한자어 어기와 결합된 '한자어+하다' 동사들은 다른 '한자어+하다' 동사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

- (8) a. 할머니는 현아를 끔찍이 위하신다.
 b. ^{???}현아는 할머니에게 위해진다.
 c. [?]현아는 할머니에게 위함을 받는다.
 d. 그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같다.

(8)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음절로 되어 있는 한자어 어기는 '-되다'나 '-시키다'를 전혀 취하지 못한다. 게다가 '정-하다', '정-해지다'를 예외로 하면, 이들은 타동사일 경우에도 피동 표현이나 사동 표현 구문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하다'가 다른 형태로 교체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수업(授業)'은 상당히 재미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수업(授業)'과 '수업(受業)'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고, 사전에도 두 형태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업(受業)'이 점차 '수업(授業)-받다'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이는 상반되는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려는 언중들의 심리를 반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둘 중에서 '수업(授業)'이 선택되고 '수업(受業)'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한자어+하다'의 형태가 초기에는 한문을 읽는 과정에서 붙는 허형태로 출발하였다고는 하더라도,¹⁰⁾ 점차 한문 문장과는 별개의 단어로 독립하여 쓰이게 되면서 '-하다' 앞에 붙는 한자어를 어느 정도 제약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다. 즉, '하다'가 본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가 작용하여 어느 정도 [+능동]의¹¹⁾ 의미자질을 지닌 어기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하다'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되다'와는 결합 가능한 어기

- 9) 3장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보아 실제 언어자료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의 논의는 더욱 그러하다.
 10) 김유정(1993)에서는 중세국어 자료를 통해 한문을 해독하여 읽는 과정을 통해 한문 상에서 이미 서술기능을 하고 있는 말에 'ㅎ-'가 함께 붙어 나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11) 여기서 제시한 [+능동]은 통사론의 능동/피동 개념과는 별개로 'internally caused' 정도를 의미하는 의미적인 자질을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이 자질의 설정의 타당성이 반증되어야만 이 장의 논의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장의 논의는 가설이나 제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9) 격양(激昂), 고갈(枯渴), 단전(斷電), 마비(麻痺), 숙련(熟練), 실종(失蹤),
오염(오염), 진척(進陟), 침체(沈滯), 혼선(混線)

이들 어기들은 동작주보다는 경험주나 피동주와 더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앞에서 말한 의미자질로 말한다면 [-능동]의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어기들에 '-하다'가 붙지 않는다는 점 역시 '수업(受業)-하다'보다 '수업(授業)-받다'가 더 화자들에게 익숙한 형태라는 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3.2. 능격동사 '한자어+하다'의 경우

한문에서는 하나의 동사가 문맥에 따라 자유롭게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한자어 어기에 '-하다'가 결합되어 능격동사가 되는 일도 흔하다.

- (10) a. b가 a와 결합하면/b와 a가 결합하면
a'. ?b가 a에 결합하면
b. a를 b와 결합하면/a와 b를 결합하면
b'. a에 b를 결합하면
c. b가 a와 결합되면/b와 a가 결합되면
c'. b가 a에 결합되면
d. a를 b와 결합시키면/a와 b를 결합시키면
d'. a에 b를 결합시키면

능격동사인 '한자어+하다'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10a)는 타동사구문, (10b)은 자동사구문이며, (10c)는 'X-되다', (10d)는 'X-시키다'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10c)는 (10a)에 (10d)는 (10b)에 각각 대응하며, 대응쌍 간의 의미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한자어+하다' 능격동사의 자동사용법은 'X-되다'로 타동사용법은 'X-시키다'로 나뉘어서 나타

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중세국어에 능격동사가 상당수 존재했으나 근대국어로 발달함에 따라 피동접미사가 붙은 형태들이 증가하여 능격동사가 사라져 간 국어사적 사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가 1음절로 되어 있을 경우 ‘-되다’와 ‘-시키다’가 결합될 수 없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피동 표현인 ‘-해지다’가 ‘-되다’ 대신 자동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 (11) a.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전한다
 b.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c. 명수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전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능격동사를 구성할 수 있는 ‘-하다’ 대신에 피동 표현인 ‘-되다’와 사동 표현인 ‘-시키다’가 그러한 본래의 의미와는 별도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설명할 수도 있다.

3.2.3. 자동사 ‘한자어+하다’의 경우

‘동작+목적’의 구조인 한자어 어기들로 이루어진 ‘한자어+하다’ 동사들은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한자어의 구조와 의미상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형태에 대해서는 ‘-하다’의 허형태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되다’ 형태도 결합불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12) 현정이는 이번 공채에 응시했다.

그러나 ‘동작+목적’의 구조인 한자어 어기를 갖는 ‘한자어+하다’ 동사도 때에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X-되다’ 형태가 가능하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 때의 목적어는 한자어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어를 한정하거나 그 목적어를 부분으로 갖는 명사(구)이다.

- (13) a. 아버지는 어제 시골길을 달려 더러워진 차를 깨끗이 세차하였다.
 b. 더러웠던 차가 세차되었다.

그런데 '동작+목적'의 구조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중에서도 '-되다'를 취하는 동사들이 간혹 있다. 이 경우의 '-되다' 역시 통사적인 피동과는 관계가 없다.

- (14) a. 철수는 12시에 도착했다.
 b. 철수는 기차가 도착하는 바람에 12시에 도착되었다.

(14)와 같은 경우에, '한자어+하다'에 대응하는 '한자어+되다'가 존재하지 만 (3)에서 보았던 창제하다 등의 동사들과는 달리 '-하다' 구문의 목적이자 '-되다' 구문의 주어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되다'를 심재기(1982)에서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되는 '-하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의도]는 '주어의 의도가 아니라 외부의 무엇인가가 그렇게 만들어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되다' 구문의 주어는 그 외부의 무엇인가의 동작의 영향을 입은 [-능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3. '한자어+하다'의 '-하다'의 의미기능

이상으로 '-하다'와 교체가능한 형태들이 한자어 어기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규칙적인 양상을 발견하지도 못하였고 모든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몇 가지 예를 바탕으로 '-하다'가 '-되다', '-시키다'와 구별되는 일정한 의미역을 맡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변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다'가 '-되다'나 '-시키다', '-당하다', '-받다' 등과 구별되는 의미역을 맡고 있으면서 불완전하나마 계열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은 '-하다'의 의미기능에 관한 해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들 중에서 한 요소만을 특정한 문법형태로 보거나, 한 요소만이 의미자질 [Ø]라고 설정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 어기와 결합된 ‘-하다’의 허형태성 혹은 의미자질 [Ø]라는 성질의 결정적인 증거로 자주 제시되는 ‘-하다’ 생략은 ‘-되다’나 ‘-시키다’에서도 나타난다¹²⁾.

- (15) a. 정부는 올 상반기 물가를 억제(하여),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b. 정부는 올 상반기 물가를 억제(시켜),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16) a. 한강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하류 부근 생태계는 거의 파괴 상태.
 b.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는 침체(되어), 실업률 더욱 증가할 듯.

이런 현상에는 동작성을 갖는 한자어 어기에 어떠한 형태가 가장 흔하게 결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지금까지 ‘-하다’의 생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던 것은 ‘-하다’ 연결형이 가장 일반적인 동작성 한자어 어기들이 매우 많고, 그것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다’는 [+능동]의 의미 자질을 가진 동작성 한자어 어기라면 대체로 어디에나 결합되어 자동사, 타동사, 능격동사를 모두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되다’가 결합되었을 경우 자동사이며 ‘-시키다’가 결합되었을 경우 타동사임을 알 수 있는데 비하여, ‘-하다’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바로 이점으로 인해 ‘-하다’가 점차 ‘-되다’와 ‘-시키다’로 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하다’의 의미는 아무래도 ‘-되다’, ‘-시키다’ 류에 비해 옅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자어+하다’ 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X-하다’ 동사에서 ‘-하다’

12) 물론 이러한 ‘-하다’, ‘-되다’, ‘-시키다’의 생략은 신문 기사 등 특정한 종류의 글에서만 발견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한자어+하다’는 한국어 복합동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사를 구성하는 한자어 어기들은 몇몇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작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하다’가 동작성을 나타내는 어기 뒤에 붙는다는 사실은 주목되어야 하며, 어기의 동작성을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들은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하다’는 선행하는 동작성 어기에 [+능동]이라는 의미자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다’는 ‘-되다’, ‘-시키다’ 및 여타의 어미들과 불완전하나마 계열관계를 이루며 이들과 결합된 형태들과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구별된다. 또한 ‘-하다’의 허형태성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생략 현상이 ‘-되다’와 ‘-시키다’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하다’가 어기의 동작성을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다’의 의미자질이 [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논의는 여러 한계를 갖고 있는데, 먼저 한자어의 분류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더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자를 분석할 때 한자의 전통적인 훈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에 관한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다. 또한 3장의 논의는 반드시 다양한 실제 언어자료를 토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설명을 위해 제시한 [±능동] 자질의 타당성 여부 역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다’를 각 용법에 따라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자어+하다’ 형용사와의 비교 및 ‘하다’의 다양한 용법을 고려했을 때에만 ‘-하다’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이렇듯 커다란 과제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자료 및 사전

- 국립국어연구원(1994), 신어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_____(1995a), 95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_____ (1995b), 국어학의 번역술어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신기철·신용철(1989),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이상은(1966), 한한대사전, 민중서림.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홍재성 외(1996),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 일반 저서, 논문

고영근(1986), 능력성과 국어의 통사구조, 한글 192.

_____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고영진(1996), 국어 풀이씨의 파생뒤틀기 되기에 대하여, 국어문법의 탐구 III-국어통사론의 문체와 전망-(남기심 엮음), 태학사.

김규철(1980), 한자어 단어 형성에 관한 연구-고유어와 비교하여-, 국어연구(서울대) 41.

김동식(1980),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42.

김영희(1981), 간접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기능, 한글 173·174.

_____ (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김유정(1993), 국어 복합술어 구문 연구-기능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47.

_____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_____ (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서울대) 22.

남기심(1986), 국어 완형 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민현식(1984), '스럽다, 룬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박병수(1974), The Korean Verb 'ha' and Verb Complementation, 어학연구(서울대) 10-1.

_____ (1977), 동사 '하'의 문법 서평, 언어 2-1.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서울대) 123.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_____ (1991), '하-'와 '되-'에 대하여, 어학연구(서울대) 27-3.

- 성광수(1976), 불완전 명사+(하다, 이다)에 대한 생성론적 분석, 어문론집(고려대) 17.
- 송병학(1973), 서술 보족문의 분석, 논문집(충남대) 12.
- _____ (1974), 소위 Denominal Verbalizer ‘-하’에 대한 연구, 논문집(충남대) 13-1.
- 송석중(1977), 부정의 양상의 부정적 양상, 국어학 5.
- 신창순(1982), 국어 부정법 연구, 언어 7-1.
- 심재기(1980), 동사화의 의미기능, 한국문화 1.
- _____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양명희(1990), 현대국어 동사 ‘하’의 의미와 기능, 국어연구(서울대) 96.
- 양정석(1990), 한국어 동사의 어휘구조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윤만근(1982), 동사 ‘하’의 통시적 관찰을 통해본 그 성격과 동사 ‘하’의 기저구조, 언어학 5.
- 시정곤(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24.
- 이관규(1986), 국어 보조동사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승녕(1961), 국어조어론고, 을유문화사.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 _____ (1975),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 이창덕(1984), 동사 ‘하’의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 정원수(1992), 국어의 단어 형성론, 한신문화사.
- 조미정(1987), 우리말 형용사의 특징과 문법동사 ‘하’의 관계, 국어국문학 97.
- 주시경(1910), 국어문법, 고영근·이현희 교주(1986), 탑출판사.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강(1995), 현대 국어 구적 접미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한정환(1993), ‘하’의 조음적 특성과 통사정보, 국어학 23.